

# 구례군, 국내 밀·보리 산업발전 위해 관계자들 의견 모아



구례군은 지난 8일 우리밀체험펜션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맥류연구회와 함께 "2025 지속 가능한 맥류 생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밀·보리 산업의 발전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연구소·산업

## 지속적 맥류생산 방안과 미래농업 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엄 "심도있는 논의 이루어져 맥류 산업 발전 이어지길 기대"

체·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맥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최신 연구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맥류 안정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기도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장은 "환경 변화에 강한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발해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용원 한국맥류연구회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맥류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은고지신, 맥류 역사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최성호 구례밀영농조합법인 회장) ▲최근 맥류 주요 연구성과와 향후 R&D 계획(강천식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관) ▲맥류 미래농업·데이터 활용 디지털육종(김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맥류 미래농업·데이터 활용 스마트재배(박진기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관계자

간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구례에서 생산한 '백강'밀로 만든 우리밀 자장면과 지역 제과점에서 '황금알' 밀로 만든 빵(바게트, 단팥빵, 파운드케이크 등)의 시식 및 기호도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밀·보리 신품종과 가공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도 운영됐다.

최성호 구례밀영농조합 회장은 "우리밀 소비촉진과 생산능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맥류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맥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국내 식량 자급률 향상과 맥류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양창식기자

## 화순군 "텀블러 사용으로 녹색생활 실천하세요"

### 관내 12곳 '착한가게' 지정...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적립

화순군은 일상 속 텀블러 사용 생활화를 위해 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인증기업인 (주)다와 '반들이' 시스템을 활용한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탄소중립 실천 참여 가게를 공모하여 커피전문점, 정향우케익, 리블리, 마실, 별다방, 벌크커피, 예솔로지, 아임파인커피, 엔유, 다움, 부터커피, 원앤시스, 예그브레드 제작소 등 총 12곳을 '착한가게'로 지정하였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누리집 회원가입 후 탄소중립 실천 스티커

(반들이 앱)를 텀블러에 부착하여 「착한가게」에서 사용하면 1회당 300원,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현금 또는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ESG 포인트도 추가로 적립 받게 된다.

한편, 텀블러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운동 참여를 위해 반들이 스티커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청 환경과(기후변화대응팀) 또는 「착한가게」 지정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개인 텀블러 사용은 지역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착한가게」와 함께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대나무축제 기간 농특산물 판매 '성황'

### 담양군, 6천여만 원 매출 기록하며 담양의 맛 선보여

담양군의 농특산물이 5월 황금연휴 동안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군은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에서 운영된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연휴 기간 굵은 날씨에도 6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는 담양을 대표하는 19개 농특산물 생산 업체가 참여해,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수박, 버섯, 전통 장류, 약주, 한과, 딸기 가공품 등 담양만의 건강한 맛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제품 시식 체험 및 페이스페인팅 재능기부, 실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객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단순 판매를 넘어 담양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가치를 높였다.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직거래 장터 운영과 온라인 연계 판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축제 기간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 대표 농특산물 판매 쇼핑몰인 '담양장터(damyangmk.kr)'는 5월 가정의 달 기념으로 전 제품 20%(전통 장류 30%) 할인 행사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군, 2025년 매니페스토 실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곡성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

와 책임감, 실천 역량을 강화해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초청되어 '분열과 협력을 넘어

미래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의 효율적 이행 방안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소통

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육 참여 직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약 추진의 체계적 실행력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현재 군은 활력도시, 부자농촌, 생태관광, 맛촌박지, 소통행정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5개 분야 40개 공약 실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분기별 공약 이행 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상래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관심과 공적자의 역량을 집중해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